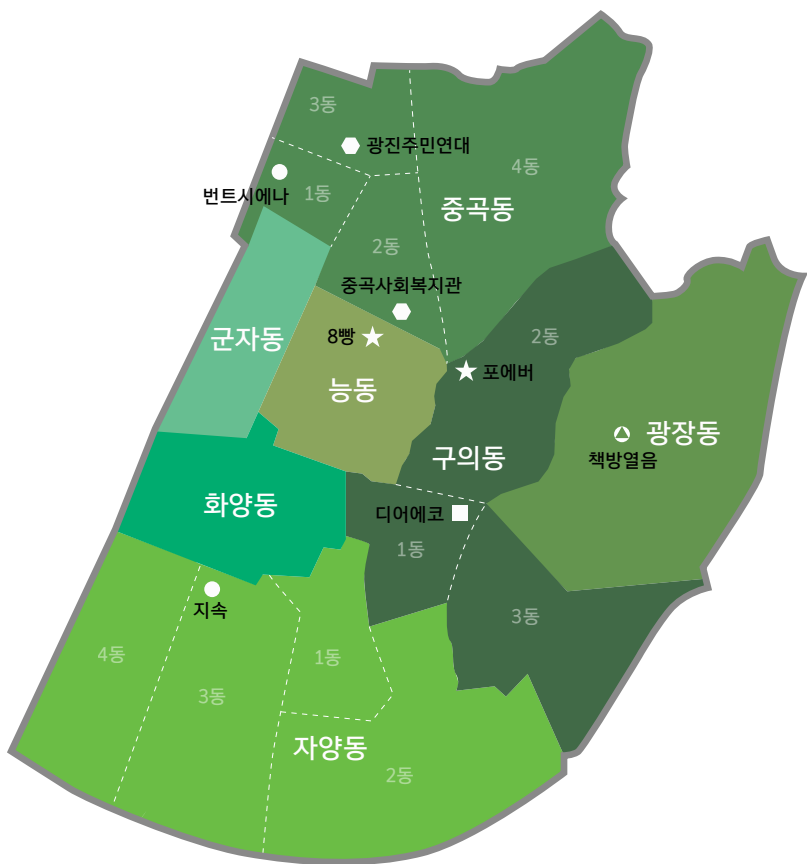


주제가있는 마을살이
우리 마을 환경지도

광진구편

광진구

- 비건 카페
- 제로웨이스트샵
- ★ 비건 베이커리
- ▲ 환경 책방
- ◆ 종합사회복지관·시민단체



● 쓰장, 가톨릭평론·녹색평론 서울청년모임

목차

여는 글

가톨릭평론·녹색평론 서울청년모임 ●

광진주민연대 ●

디어에코 ■

번트시에나 ●

쓰장 ●

중곡사회복지관 ●

지속 ●

책방열음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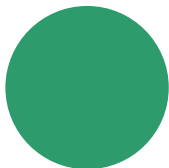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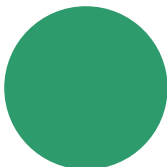
8빵 ★

포에버 ★

환경관련 도서

분리수거 Tip

여는 글



안녕하세요, ‘환경을 고민하는 마을살이’ 주제로 활동한 [실천독서]팀입니다. 코로나 기간 내 쓰레기를 비롯하여 기후 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저희도 단순한 독서에서 벗어나 좀 더 실천적인 활동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광진구 내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가게나 모임, 단체 등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소개하게 된다면, 저희처럼 심각성을 고민만 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고민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분들이 신념대로 활동하는 것은 약간의 효율성과 이익 추구를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작은 모임들은 자신들의 미미한 움직임이 큰 울림이 되지 못하더라도 멈추지 않는 용기를 냈습니다. 복지관이나 시민단체 등은 한두 명의 지역 주민들일지라도 함께 하자 끊임없이 손을 내밀고 말을 거는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환경마을지도를 기획하고 발간하는 과정 동안 아쉽게도 문을 닫는 곳도 있었습니다. 계속 변화되는 마을지도를 지면으로 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 마을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환경을 고민하며 이런 작은 용기를 내는 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함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 좀 더 적극적이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내용을 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환경을 고민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천독서]팀으로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코로나 집합 명령 기준에 따라, 자녀들이 전면등교를 하지 못하는 보육상태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지역 주민분들께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의 환경마을지도를 만나보세요!

가톨릭평론·녹색평론 서울청년모임 ◆



올 초 가톨릭평론·녹색평론 서울청년 독자 모임인데, 읽은 책을 기증하고 싶다며 놀자도서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차산에 플로깅하러 가는 중에 도서관에 들러 담소를 나누고 가셨다. 광진구에서도 활동 중이라 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흔쾌히 수락하셔서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후문에서 토요일 오후 만났다.

1. 먼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윤화영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가톨릭 기후행동청년 삼삼오오] 이구요. 말 그대로 삼삼오오 세 명에서 다섯 명 소규모로 모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가톨릭 기후 행동 안의 작은 청년 모임이에요.

저희의 시작이 2020년부터라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금지로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어요. 코로나 초창기 신천지 문제로 종교모임이 금지되다 보니, 신부님 제외하고 우리끼리 모이게 되고, 종교가 아닌 친구들도 만나게 되면서 우리만의 색깔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톨릭평론, 녹색평론 서울청년독자모임] 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어요. 종교색을 내지 않아야 할 경우는 [서울청년독자모임], [서울기후행동 청년 삼삼오오] 등 다양하게 색을 내고 있어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2020년에 4.16 재단에서 하는 [4.16의 꿈]이라는 행사예요. 여기에 저희가 1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2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형태죠. 여기에 저희가 [가톨릭청년 도시 순례자]라는 이름으로 다크투어하면서 우리 순례 지도를 만드는 것을 했었어요. 목표는 “꺼지지 않는 촛불혁명 역사 현장을 찾아서 다크투어 지도 만들며 전환하는 세상을 향해 행진하자”였어요.

서울에서는 4.16 티켓팅도 하고, 거제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 근 100년사 안에 아픈 역사를 잇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지금은 기후 행동을 할 때인 거 같아.”라고 생각해서 2020년 8월 25일에 가톨릭기후행동 동아리 모임에 승인이 되어 이 모임이 공식화되었어요.

모인 사람들 각자의 키워드인 “평화, 기후행동, 통일, 청소년” 등을 주제로 시대에 응답하고 행동하는 예언자의 길을 가지 싶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4.16 청년 세대, 스스로 세상에 질문하는 세

대”로 정했어요.

우리의 베이스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고민하게 되었죠. 제주도 활동가들은 그곳에서 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학교나 직장도 있고.... 결국 우리는 도시에서 “서울 도시 순례자”가 되자. 우리는 코로나 1세대이다. 가톨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생태 전환하자는 “찬미 받으소서” 라는 회칙을 내셨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전환하는 세대가 되자 했어요.

2. 2020년부터 활동을 했는데도 많은 활동을 한 거 같아요.

윤화영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인데도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아니면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3. 다들 직장인이세요?

윤화영 원래 학생도 있었으나 군대나 이사로 함께 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직장인이예요. 한 달에 한 번 [기후변화 시네톡]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는 줌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4. 중요한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윤화영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기후행동 금요결석 시위 광화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때, <전환>이라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 명동성당 ‘가톨릭 생태학교’에서 노래와 춤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어요. 기후 행동에 청소년이 메인이 되어야겠다, 그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깊어가면서 중앙집권적 모임이 안되다 보니,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아차산이나 어린이대공원에서 플로깅도 하고, “아차산을 사랑하는 기후 시민이 되어요”라는 티셔츠도 만들었어요. 광진문화연구소 나루아틀리에 프로그램의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요’ 워크숍에 참여하여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직장인이다 보니 플로깅을 하다 보면 밤늦게 되는 거예요. 퇴근 후 아차산에 가서 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밤 9시에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사진이 [아차산 메아리 8월호]에 실리기도 했어요. 사람들한테 아차산 야경을 보게 된 이유를 알렸죠.

지나가는 어르신이 “젊은이들이 좋은 일 하네” 말을 걸기도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눈빛들도 저희가 느껴 이 티셔츠를 만들게 되었어요. “무슨 동아리예요? 행사 나오신 거예요?”

라며 우리에게 말을 걸기 편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건 새마을운동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를 보면서 버리는 문화에 대해 생각하는거죠. 이 티셔츠도 우리가 입는 옷으로 만들었어요. 플로깅 가방도 우리가 쓰던 장바구니로 만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작지만 기후 행동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너 왜 일회용 써?” 하며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차산까지 와서 땀 흘리는 여러분들이라면 기후 행동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환대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도에도 활동가들과 현지 청년들과 많은 이질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소중한 월차를 내서 가는데 저렇게까지 할 수 없다. 그래도 매개체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싶었죠. 4.16도 그때 뜨거웠던 사람,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과의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었죠. 너의 삶을 다 바쳐야 하는데 넌 왜 그렇지 않는지 하며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만 청소년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제시해 주지 못해서 아쉽고 두려워요.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이 기쁘게 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저희가 생각한 게, 분단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닌데 그 숙제를 안고 살잖아요.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올해 DMZ를 한 달에 한번 가자. 그런데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길이 사라진다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사라지는 길이다 싶었죠. 올 6월에 판문점도 어렵게 예약이 되어 갔거든요.

우리보다 어린 군인들이 “여러분은 5분 동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V자 등은 안되고 정자세로 찍으셔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통일부이잖아요.

고성, 파주, 판문점, 연천 등 다니면서 거기에서 BTS의 ‘permission to dance’ 퍼포먼스 영상도 찍었어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마스크 벗을 때 감동이었어요.

제가 직업이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사이거든요. 중구 보건소에

있다가 올 7월 1일로 광진구 보건소로 왔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톨릭에서 “내가 교회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하나의 지체이고 교회이다’를 몸소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직장에서는 해봤자 중간관리자이고, 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스스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 싶었죠. 미얀마에서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청년 세대에 대한 자긍심이 들었어요. 우리 모임 사람들도 불교기후행동직원, 사회복지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성에 안 차서 또 모여 자기의 색깔을 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나’라는 존재가 많이 세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ZOOM 모임에도 메시지를 알리는데에 한계가 있어 최근에 저희가 글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양한강도서관에서 하는 전자책 출판 수업도 들었어요. 코로나 19 동안의 우리의 목소리와 활동을 책으로 내보자.

단순한 퍼포먼스나 블로그에 깊은 메시지를 다 낼 수 없잖아요. 좀 더 적극적 능동적 독자가 되고, 우리도 작가가 되보자.

사실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이 친구 때문이에요. 우동준이라고 부산 호밀밭 출판사에서 하는 인문문화공간 <생각하는 바다>매니저인데 <오늘도 만나는 중입니다>(2020) 책을 낸 거예요. 2020년 2월에 부산에 직접 가서 두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 10월에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독서동아리 ‘저자와의 만남’ 사업에 선정되어 북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또 대단한 것이, <내 얼굴에 아버지가 있다>(2021)라는 책을 이번에 또 냈는데, 세대 간의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청년기후행동] 모임이지만, 다른 세대에게도 함께 하자고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네(광진구)에서 광진문화연구소 작당모의 프로젝트 2기에 ‘마을기록자’라는 이름으로 60대 자매 2명과 30대 청년과 함께 마을기록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자책 준비하기 전에는 광진정보도서관 독서동아리 리더 글쓰기 보수 교육 참여 했었는데, 코로나로 모임이 파편화되고 분산화되다 보니, 지역사회 거점이 되는 곳이 도서관이더라고요. 비대면으

로 책을 통해서 깊은 메시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차산 아래작은도서관 놀자도 알게 되었고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고 바보회 나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적당한 일상’이라고 조금씩 굴러가는 글쓰기 수업도 하고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5.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나 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네요. 모든 활동이 특별한데, 좀 더 특별한 경험이 있었나요?

윤화영 세월호 관련 논문을 쓰는 이예성 박사님의 연구에 참여하게 되어 인터뷰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가 스토리가 있구나. 누군가 청자가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보가 연구 대상이 되고, 4.16으로 기후도 생각하고 연대할 수 있구나 싶었죠.

작년 세월호 녹슨 선체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팽목성당에 다니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세월호 사람들과 팽목항 석탄재 매립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 있는 것 보고 우리도 해 보지 싶었죠. 세월호 유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말고도 저희랑 비슷한 세대를 만나고 싶었는데, 환경챌린지 영상 촬영 함께 한 ‘자매의 춤바람’이라고 있거든요. 세월호 선체 함께 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동생이 세월호 희생자였어요. ‘기억의 숲’에서 내 동생 이름이다 하는 순간 알았어요. 그 자매도 세월호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제안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삼삼오오 소수이지만, 함께 하고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순간이었어요

6. 진지함과 가벼움 사이에서 하고 싶은 것을 잘 하는 거 같아요.

윤화영 우리의 고민점이기도 해요. 플로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티셔츠도 당신도 만들어 입을 수 있다. 하면서도 너무 가볍게 보일까 싶어요.

우리가 경험한 깊은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한국예술종합학교 평생교육단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수업도 듣고 있어요.

7.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윤화영 아까 말했듯이 종이책은 아니더라도 전자책이라도 출판해 보자. 2020년, 2021년 코로나 시대의 평범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내고, 우동준 작가님처럼 세대 간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나의 결핍을 나만의 결핍으로 하지 않는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 삼삼오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8. 광진구에 바라는 것이 있나요?

윤화영 지원금 사업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광진구 내에서 모임 지원하는 사업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의 문턱이 낮아진다면 여러 삼삼오오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녹색평론 같이 읽은 친구들도 ‘서울시 평화통일 청년리더’에서 만났거든요.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작은 실천력에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모임의 다른 분들도 뒤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4.16 마스크를 함께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광진구에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청년 삼삼오오 010-8625-0672

